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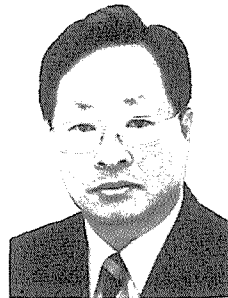
미국 테러사건과 OPEC의 선택

1. OPEC의 시장전략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태는 세계 석유시장에 극심한 불확실성을 안겨 주었고, 이에 따라 유가는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테러 27일 만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미국의 보복 형태와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된 틈을 타 국제 원유 가격은 20불대 이하로 사태 이전 보다 5~6불이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OPEC의 유가 부양 대응이 주저되자, 이제는 OPEC의 유가밴드제의 존속의지와 시장 조절 능력이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석유 가격은 70년대 1,2차 석유 위기 후 84년까지 10여년간 초강세를 유지하였다. 당시 산유국은 정부 판매 가격(GSP)체제를 운영하며,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을 활용, 유가를 강세 기조로 몰고 갔다.

80년 중반이후 이란·이라크 전쟁 외중에서 대량 축소되었던 이란과 이라크 양국의 석유 수



김진석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출 능력이 회복되자, 생산 보충자(Swing producer) 역할을 하였던 사우디의 잉여 공급 능력의 삭감문제가 거론되면서 유가는 약세로 전환하였다.

1990년 8월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사태는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수출물량 5백만 바レル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였으며, 당시 수급보충에 나선 것이 사우디, 이란등이 었다. OPEC 제국들은 종전후 쿠웨이트의 석유 수출이 급속히 회복되고, 수년을 끌어온 이라크의 금수조

치도 조건부 해제되자, 각국은 여유공급 능력의 처리문제를 가지고 시장점유율 경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7년에 해당하는 이 기간중 유가는 현물유가에 연동되는 공시가격(OSP)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공급자(OPEC)는 힘을 잃고 유가는 1~2년을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였다.

98년 이라크의 공급 재개가 공식화되고, 일부 OPEC 국가들의 밀어내기식 공급이 극성을 부리게 되자 유가는 마침내 10불 이하로까지 투매 되었고 일부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 고유가를 우려하는 것은 언젠스라는 속단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OPEC의 와해 가능성까지 회자되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하였던 것 같다. 그 첫째가, OPEC은 여전히 석유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라는 엄연한 사실이었고, 둘째가, 그간 우리가 즐겼던 저유가 혜택이 근본적인 공급초과나 엄청난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이었지, 한시적인 공급 여유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급 및 재고 여유 때문이 아니었다고 착각했던(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조했다) 점이였다. 셋째로, 극단적인 저유가 사태는 세계 경기의 상승을 촉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어 새로운 석유 수요를 창출한 한편, 석유 탐사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위축시켜 장차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였다.

2. 성공한 소비국 재고 말리기

제108차 OPEC 총회(99.3)는 107회분까지 합쳐

총 470만바렐의 OPEC 생산 쿼터 삭감을 선언함으로써, 본격적인 소비국 재고 말리기에 착수하였고, 소비국은 너무나 무력하게도 불과 10개월이 지나지 않아 보유 재고 수준이 24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OPEC은 필요시 언제든지 소비국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수단을 행사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유가 밴드 제도가 그 새로운 수단이다. 산유국은 22~28불 사이 유가를 기준으로 공급 조절을 하게 되면 산유국 소비국 모두 유가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일부 논객들은 앞으로 소비국과 산유국이 적정 수급 규모와 유가 문제를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산·소 협력 체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 유가가 9불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던 99년 2월 18일 영국의 석유 전문지 Energy Day에 기고하였던 Campbell씨의 주장은 석유 자원의 자급수준이 극도로 낮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심각하고 뼈아픈 지적이었다.

그는 “1996년도 시점의 중동석유 의존도는 29%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경에는 43%, 2020년경에는 49%에 이르게 될 것이다. 29% 시절에는 중동세가 유가를 조절할 만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지만 2000년 이후 비중동 지역의 점유율 비중이 축소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가격 통제력은 증대되게 될 것이다.

2010년경 중동의 공급 비중이 43%까지 가기 훨씬 이전 어느 시점에 필연적으로 유가 파동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상해 동북아 지역 세계석유회의에서 필자가 사우디 나이미 장관에게 동 산·소 협력관계의 진전 수준을 질문하자 그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될 에너지 포럼에서 구체적인 거론이 있게 될 것으로 안다고 한 바 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유 가격 결정 메커니즘과 수급 체계가 변해있다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세계 석유 시장은 유가는 한 18불 정도면 된다고 알아온 과거 우리의 유가 인식을 비롯기라도 하듯이 25불 정도까지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타협해 왔다.

3. OPEC의 새로운 위기

기실 9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117차 OPEC총회는 7월 25일 추가 100만B/D 감산을 결정한 이후 9월 1일부터 발표된 감산 효과와 미 테러 사태로 불안감이 팽배한 시장관리를 여하히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동 회의에서 OPEC은 지나친 유가 파동을 원치 않으며, 일단 유사시 시장 안정을 위하여 적극 개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OPEC이 3차 감산을 통해 금년중 350만 바レル을 감산하는데 합의를 도출하여 쿼터를 2,320만 B/D로 줄이는데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9~10월중 90만~130만 바レル 정도가 초과 생산되고 있으며, 멕시코, 러시아등 일부 비OPEC산유국들이 고유가 상황을 틈타 상당수준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사실은 OPEC 가격전략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진입하게되는 금년의 혹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도 월동기 유가 행배와 이에 대응하는 OPEC의 시장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변수중 하나이다.

게다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초기 공격 형태가 산유지역이나, 석유 선적시설에 대한 타격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나타나자 유가는 일제히 약세로 돌아서 OPEC 바스켓 유가는 11월 12일 현재 연속 35일 동안 유가 밴드 아래로 내

려갔지만, OPEC은 가격조절 목표인 유가밴드내 진입을 위해 추가 감산을 통한 시장조절을 유보시키고 있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OPEC이 유가 부양과 비OPEC국의 시장점유율 잠식을 장기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시장전략 모색에 고심중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금 OPEC이 취하고 있는 유보전략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인가? 이에 대한 배경을 여하히 해석하는가에 따라 OPEC의 시장전략을 힘을 배경으로 한 대안인 것으로 믿을 수도, 그렇지 못한 선택인 것으로도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최근 현물의 기술적 분석은 추가 하락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 대세이다. 그런데도, 10월 8일자 OPEC 사무국의 시장분석 부문 책임자 Yarjani는 유가 폭락은 있을 수 없는 바, OPEC의 대응 능력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OPEC이 추가 감산을 하지 않는 직접적인 이

유는 첫째, 전쟁초기에 유가가 빠졌다고 해서 전쟁 프리미엄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중동지역으로의 전장 확대시 수급 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기 감산까지 하여 수급에 불안을 주어 유가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그간의 고유가로 비OPEC산유국의 생산이 급증하였으며, 추가 감산을 하게 되는 경우 OPEC의 시장 점유율이 위축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필요한 전술은 비OPEC산유국의 자체나 공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 셋째, 그렇치 않더라도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퇴 전망으로 fundamental 측면에서 유가약세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유가밴드 내 회귀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OPEC 내부의 회의론이 상당한 세력을 키워고 있다는 점등이다.

4. OPEC의 선택방향

육상 전투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테러를 지원하는 제3국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된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의 관련 설은 미테러 사태 초기부터 비취지던 설이었는데 아프간지역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게 되자, 다음 단계의 행보로 나서는 게 아닌가 추측된다.

9월 중순경 장기적인 유가 약세론의 선두에서 있었던 CGES의 야마니 전사우디 석유장관 마저 느닷없이 이라크로 확전시 유가는 30불을 각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만약 OPEC이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시장 전략을 움직여 왔다면 중동지역에 긴장이 발생하고 석유가 수출되는데 장애가 발생할 경우, OPEC이 개입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10월 19일 개최된 시장감시 위원회와 10월 29일 개최된 OPEC·비OPEC 전문가 회의는 이러한 OPEC의 시장 전략을 재확인 한 것이다.

요즈음 불안스럽게 진전되고 있는 이라크의 생화학전 개입 추측이 확인되어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 되는 경우, OPEC이 희망하는 것과 같이 OPEC 바스켓 유가 25불대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개입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될 것이다. 이는 OPEC의 시장 조절 능력이 견재하고, 비OPEC도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만약, 미 테러사태의 진전이 석유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장기적인 수요감퇴로 인해 유가가 약세로 가게되는 경우, OPEC은 필사적으로 비OPEC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쿼터를 위반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약속 준수 요구 강도를 높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가밴드 및 목표 유가의 하향 조정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 논의될 것이다.

최근 베네주엘라와 사우디주도로 추진중인 OPEC, 비OPEC 산유국간의 협조구축 수준과 감산 촉구 움직임의 성사 여부는 이러한 상황 전개에 방향을 점쳐보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상기 모든 고려사항에 덧붙여, 본격적인 겨울철로 진입하게되는 금년의 혹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도 월동기 유가 향배와 이에 대응하는 OPEC의 시장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변수중 하나이다. 150만 바렐까지 감산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11월 14일 118차 OPEC 임시총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